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시기**입니다. 판공성사를 통해 주님의 성탄을 잘 준비하는 복된 대림시기 맞으시기 바랍니다.
- ◆ 성탄 판공성사 안내
 - * 대림시기 동안 매주 주일미사 전후로 성사를 보시고 판공성사 확인 중이에 성향, 세례명, 구역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신자 교리 신청 안내
 - * 신청하실 분은 김정일 그레고리오 형제님 (614-496-314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례증명서 신청 안내
 - * 세례증명서 관련 사항은 본당 사무담당 위원장 최레지나 자매님 (614-915-83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
 - 일시: 12월 6일(토) 오후 5시
 - 장소: Holy Family Church (Parish Center)
- ◆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성가단장 박영주 마리아 자매님 (614-315-8598)에게 연락바랍니다.

- ◆ 성모회 연말 모임
 - 일시: 12월 6일(토) 오후 1시
 - 장소: 고로사 자매님 댁 (406-0489) 4010 Laurel Valley Dr. Powell, OH 43065
- ◆ 성모회에서 **롯데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선화 아네스 자매님께 문의하십시오.
- ◆ 친교 준비 봉사자
 - 11월 30일: 송 프란체스카
 - 12월 7일: 이호근
- ◆ 11월 친교 후 정리 봉사: 정하상 구역
- ◆ 12월 친교 후 정리 봉사: 김제준 구역
-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시-1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599 E 8th Ave. Columbus)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대림 제1주일 November 30, 2008



<엘리아의 꿈>

필립 드 상파뉴 (1602-1674), 유화, 뜨세 미술관, 르망, 프랑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51.00
교 무 금	\$5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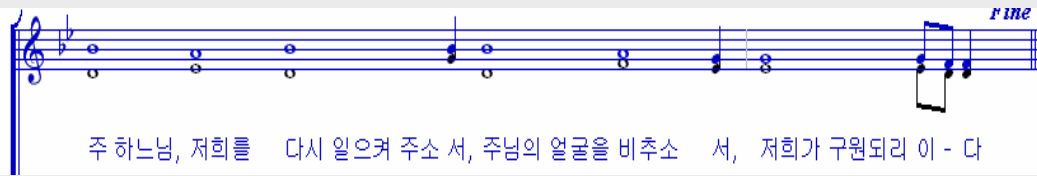
- 교 무 금: 박석현 연도흥 권혁제 이도근 최규선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이사야서 63,16-17.19-20;64,2-7
 “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화답송



제 2 독서 고린토1서 1,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자애를 보이시고, 주님의 구원을 베푸소서.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3,33-37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2,635단 19명
이호영	128단 2명	14,517단 86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185단 2명	7,230단 75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학생 구역	단 명	10단 2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313단 4명	2/22/04-11/23/08 (249주)

☞ 총누계: 205,512단 12,702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11월 30일	12월 7일
해설자	곽광주	고상식
독서/봉헌	정하상 구역	이호영 구역
보편지향 기도	상지의 옥좌	십자가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91 ♫ 봉헌: 218
 ♫ 성체: 159 162 ♫ 파견: 88

생명의 말씀

기다림 - 절망 속 희망 찾기

박성철 미카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오늘 제 1 독서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느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살육의 현장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처절합니다. 구원의 하느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하느님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 하느님, 제발 하늘을 찢개고 내려오십시오!”(공동번역)

교회는 하느님을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구원의 하느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기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사도신경에서 교회는 오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신약성경은 오시는 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소서. 주 예수여!”(묵시 22,20). 이 부르짖음은 C. 까레토의 표현을 빌면 “그리스도께서 지상을 떠나신 이후에 하늘나라를 향해 바쳐진 뜨거운 모든 기도의 집약”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희망을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희망은 종종 절망 속에서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한다는 절절한 부르짖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하느님, 제발 하늘을 찢개고 내려오십시오!”

이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곧 가겠습니다!”(묵시 22,20)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에도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떠났다가 기어이 여러분에게 다시 오겠습니다”(요한 14,18).

제자들이 한방중에 호수 한가운데서 있는 힘을 다하여 집채만한 물결과 싸우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마르 6,50).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지냅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목상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기쁨의 시기요 설렘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은총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러나 언제나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것, 역사의 아픔 속에서 구원의 하느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처절한 몸부림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더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립니다. 오시는 주님으로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 하느님, 하늘을 찢개고 내려오십시오(破天降下 파천강하!)”